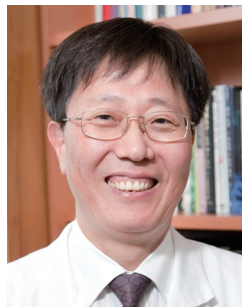


메르스 유행과 의료인의 윤리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자신이 전염병에 휩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환자를 끝까지 돌보아야 하는가?’는 의료전문직의 오랜 화두였다. 현대인의 생각과 달리 유효한 예방이나 치료 수단이 없는 유행성 질병에 대처하는 의료인의 자세에 관해서는 중세 이후까지 뚜렷한 규범이 정해지지 않았다. 히포크라테스를 계승하여 서양 의학을 체계화한 고대 로마의 명의 갈레노스도 로마에 역병이 돌아 고향인 그리스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듯이, ‘아픈 사람을 돌볼 의무’는 치사율 높은 역병이 닥칠 때마다 의사들을 갈등케 만들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가 유행병 발생지역 사람들에게 했다는 ‘빨리 떠나, 멀리 가서,

늦게 돌아오라(cito, longe, tarde)’는 처방을 스스로 실천에 옮겼다.

14세기 이후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할 때마다 도망치는 의사들이 속출하자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의사를 고용할 때 도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이 의사들에게는 어떤 역병이 유행해도 주민과 함께 남아야 하는 법률상 책임이 있었다(다른 의사들은 역병이 유행할 때 죽음을 무릅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고액 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즉 페스트가 유행하면 많은 의사들이 탈출했고, 일부 의사들은 계약 때문에 할 수 없이, 혹은 자비심이나 애국심 때문에, 혹은 금전적 이득을 바라고 위험한 도시에 남았다.

누가 마지막까지 환자 곁을 지키는가는 의사의 교육 과정,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와 무관했다. 17세기 영국에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는 귀족 출신이나 신분이 높은 의사들, 영국 국교도 목사들이 대거 런던을 떠났지만, 신분이 낮은 약제사(서민 의료를 담당하던 약사 겸 의사)와 비국교도 성직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봉사하며 자리를 지켰다. 당시 약제사 중 한 명은 “전문직의 일원으로서 일을 맡았거나 직장을 책임진 사람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고통도, 이익도 불편도, 일부만 따로 선택할 수 없다. 성직자는 설교해야 하고, 지휘관은 전투해야 하며, 의사는 환자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는 말을 남겼다.

양심적인 의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죽음의 위협과 환자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의 갈등’이 명확히 정리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료전문직의 특성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19세기의 일이었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은 우리나라 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새로운 역병의 도전이었다.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온 나라가 휘청거렸으며, 다수의 의료인이 감염되는 희생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빨리 떠나, 멀리 가서, 늦게 돌아온’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의료계에도 의료전문직의 윤리가 든든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